

선출직 낙마? 참사책임 규명할까...해 넘기는 주요 재판·수사는

광주·전남 지역사회의 눈과 귀가 쏠린 주요 사건 재판과 수사가 해를 넘겨 새해에도 이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각기 기소된 지역 국회의원 5명 중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과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등 2명은 아직 1심 선고가 나지 않았다.

안도걸 의원은 1심 변론이 최근 끝나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무작위 자동 발송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동생 운영 법인에서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인 내년 1월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 일정 상의 이유로 2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의 선거법 재판 역시 내년에도 계속된다.

정 의원은 올해 2월 수사·기소 검사 미분리에 따른 절차상 하자로 공소가 한 차례 기각됐으나 검찰이 재기소하면서 다시 법정에서 싸웠다.

정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당내 경선 직전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문자메시지를 돌리도록 지시한 뒤 그 대가를 지급하고, 건설사 대표로부터 자녀의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재기소를 강행, 또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했다.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3일 오후에 열린다.

반면 신정훈(나주·화순), 김문수(순천·



2026년 새해에도 12·29 무안공항 재추항공 여객기 참사진상·과실 규명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수사 이어진다. /뉴스



2026년 새해에도 12·29 무안공항 재추항공 여객기 참사진상·과실 규명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수사 이어진다. /뉴스

직 잃을까... 안도걸 의원·이상의 군수 1심 내년 1월중 선고

아이파크 참사재판 2심, '김신혜-저수지 아내 살인' 재심도

여객기 참사 진실규명도 해 넘겨... 도서관 붕괴 수사 '한창'

광양·곡성·구례갑, 박군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올해 확정됐다.

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1심 무죄를 받은 이상의 전남 함평군수의 항소심은 해를 넘겨 선고재판이 열린다.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 만큼 무죄 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 군수의 2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22일이다.

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2022년 1월11일)와 관련, 법원 3곳과 현산 전 대표 등 17명에 대한 항소심도 이어진다.

1심에서는 현산의 현상조사·직급별 책임자와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에게만 징역 2~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실무자금 원·하청 직원과 감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현산의 전현직 경영진은 무죄가 인정됐다.

원정인 현산과 하청사인 가현건설 측이 책임 공방을 이어가자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를 거

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유족들이 국토부 전 장관 등을 고소한 사건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총 44명이 형사 입건됐다.

4차례 압수수색서 확보한 압수물 3000여점을 분석하고 1만5000여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피의자로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부녀(父女)가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원점으로 돌아간 '청산거리 막걸리 살인 사건'(2009년)의 진범을 찾는 재수사에도 나섰다.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당시 수사자료부터 검토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신축 공사 중 하청노동자 4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원·하청사 관계자를 입건한 데 이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제기한 철골조 접합 부실, 무리한 공기 단축 등 의혹도 두루 살핀다.

광주지검이 현직 교육감까지 수사를 확대한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의 경우 아직 추가 기소는 없다. 기소 여부 판단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티즌' 특목 정학 의혹, 대학원생을 사망으로 내른 전남대 교수 갑질 사건, 곡성 전현직 군수·군의원 연루 관공사 비위 등도 내년엔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원철 기자



전남교육청, "2026년을 반부패 청렴의 해로 선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강도 쇄신 대책 추진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3일 긴급상황 대책회의를 갖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체감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고강도 쇄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교육청의 종합 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으며, 청렴체감도는 5등급으로 하락한 반면 청렴노력도는 3등급을 유지했다. 이중 청렴노력도는 91.6점을 받아 시·도교육청 평균(90.1점)과 전체 평균(84.8점)을 상회했으며, 전년도 점수(89.7점)보다 상승했다.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청렴정책 추진 체계와 제도 정비, 부패 취약 분야 분석 및 개선 노력, 기관장과 고위직의 청렴 실천 의지, 부패 유발 요인 정비 등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렴정책의 실행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염선호 기자

다만 전남교육청은 이번 평가의 청렴체감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학교운동부 운영과 공사 관리, 예산 집행 등 일부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에 두고 청렴정책이 문화로 정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초 강도 높은 청렴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와 교육 현장 등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청렴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평가 결과를 겸허히,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면서, "지난해 청렴도가 하락하면서 강력한 청렴 드라이브를 걸며 청렴특별정책팀 신설과 ISO 37001 인증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으나 아직 현장에 충분히 정착되지 못했다. 내년엔 반부패 청렴의 해로 선포하고, 조직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29 무안공항 재추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앞두고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추모기도회가 열렸다. 유가족들은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진실 규명을 염원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등 종교 단체는 24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기도회를 열었다.

추모식에는 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 종교계, 일반 추모객 등 130여명이 모였다. 추모식은 예배, 모임찬송, 공동기도, 성경독, 말씀 증언, 추모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주기를 불과 닷새 앞둔 이날 유가족들

'360일의 설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기도회

은 애써 텅텅난 표정을 지었다. 피복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지 360일째, 유가족들은 차오르는 슬픔을 애써 억눌렀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잠시, 기도문과 찬송가가 고요한 공중에 울려 퍼지자 일부 유가족들은 억눌러온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먼저 떠난 가족들을 애타게 그리워했다.

추모사에 나선 이훈삼 목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은 삶 자체가 고통과

한 유가족은 "슬픔을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또 눈물을 보였다. 기도를 듣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지만 목사님들께서 하신 말씀처럼 유족들의 아픔은 지울 수 없다. 하루빨리 사고 원인 등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12·29 무안공항 재추항공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 22일부터 참사 1주기 추모 주간을 운영 중이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이날 '무안공항 진실의 길', '도덕하고 나눔의 밤'의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28일부터는 이틀동안 참사 1주기 추모의 밤을, 29일에는 참사 1주기 추모식을 거행한다. /뉴스

광주시, 노후·약취 하수관로 집중정비한다... 1000억 투입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 648억원을 확보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사업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 분류식 사업 등 17건이 확정돼 국비 648억원과 시비 347억원 등 총 1000억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확보한 국비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침수예방시설 확충과 노후관로 정비,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하수도 악취 환경 개선 등에 집중 투입된다.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 40km를 정비하고 북구 중앙6분구(두암동·우산동), 서구 서창1분구(화정3동·상

무2동·풍암동), 광산구 소촌분구(운수동·소촌동)지역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한다. 동구·남구 하수도 악취를 개선하고 극락천 유역 하수도 중점관리지역도 정비한다.

사업이 단계적으로 완료되면 국지성 폭우에 대비한 배수 능력 향상, 침수 피해 최소화, 하수 처리 효율 증대, 주거지역 악취 민원 감소 등이 기대된다.

김훈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개선되고 하수 처리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